

#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전라남도 해남군  
- 슈빌리지역아동센터



2017. 7

---

최\*아

---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서로 교감하며, 같이 웃으면서 즐거운 4박 5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을 통해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일상의 작은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생각보다 많이 순수하고, 예측하기 어려웠고, 섬세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점차 시간을 함께 할수록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개성있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예쁘고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은 투명스럽게 굴던 아이들이 당황스럽던 첫날부터 코끝이 찡해지며 아이들과 헤어지던 마지막 날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4박 5일은 제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가와서 스스럼없이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던 아이들과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무엇 이든 열심히 임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고마움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남의 좋은 자연과 밤하늘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

최\*희

---

주빌리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일손임에도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센터의 아동복지사 선생님들 덕분에 든든했고, 이화봉사단 팀원들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제게 해남은 초록색, 파란색이 가득한 지상낙원이었지만, 아이들이 더욱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갔던 주빌리 아동센터는 슈퍼를 가기위해 차를 타고 10분은 이동해야하는 시골이었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멀리 떨어진 광주나 목포로 가야했습니다. 여전히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쁜 농사일과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때론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센터장님께서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쌓이고 쌓여서 아이들 마음에 작은 꿈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매년 이화봉사단을 맞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값진 시간을 선물할 수 있을까, 팀원들과 열심히 고민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똑똑한 주빌리의 아이들이 잠시나마 저희를 통해 넓은 세상을 보고, 다른 꿈을 키울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엔 불평을 하다가도 이내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매우 예뻐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내가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들도 처음에는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활동이든 항상 처음에는 '하기 싫다', '이미 해봤다' 와 같이 불멘소리를 냈지만 막상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기 때문에 활동을 잘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한다. 단원언니가 마무리 인사를 할 때 항상 '내일도 재밌게 놀자'고 했는데 그 말대로 5일간 아이들과 어울려서 재밌게 놀았던 것 같다. 내가 해남에서의 일주일을 즐겁고 소중하게 회상하듯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일주일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첫 날에는 지역 교회 아동부 수련회와 날짜가 겹쳐 아이들이 여덟 명밖에 오지 않았는데 요일이 지날수록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모두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참여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기뻐다.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해 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줄지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들 열심히,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 하기 싫다며 장난치고 투덜대다가도 활동을 시작하기만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눈을 반짝이며 참여해서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정말 대견했다.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분명 부족하고 엉성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그 모든 활동을 아이들이 스스로 의미 있게 완성시켜주었다. 아이들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순수하고, 개성 있고, 한없이 아이 같으면서도 의젓하고, 씩씩하면서도 여리고, 관심받기를 좋아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더 깊게 알아가면서 다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라고 느껴졌고 내가 줄 수 있는 애정을 모두 주고 싶었는데 나의 표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하고 아쉬웠다. 하루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00이를 칭찬해주어야지.', '00이와 더 열심히 참여하자고 약속해야지.' 생각하면서 혹시 애정을 주지 못해서 속상했을 아이가 있지는 않았을지, 한 아이만 눈에 띄게 예뻐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반성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이 행복하고 감동받고, 나 자신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한 4박 5일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

안\*인

---

사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잘 따라와 줄 것인지 걱정이 많았다. 센터 아이들이 나이 차이가 꽤 나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도 문제였고 또 남자아이들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평소 아이를 대할 기회가 적었던 나는 과연 내가 아이들을 잘 통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 도착한 첫날에 아이들이 8명밖에 오지 않아서 원래 계획했었던 팀 만들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내가 담당했던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를 했는데, 처음에 쑥스러워서 시큰둥했던 반응과는 다르게 너무 열심히 집중해서 참여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내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막상 시작하면 프로그램 몰입도가 높아서 준비해갔던 프로그램 모두 아이들이 정말 잘 해내었다. '선생님 보물찾기 또 하면 안돼요?' 하며 조르다가도 질서점수를 준다고 하니 재빨리 앉아서 손머리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 단 5일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많은 것을 느꼈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특별히 가르친 것은 없지만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빠지고 달래면서 생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

허\*연

---

이화봉사단으로 해남에 가기 한 주전, 경주의 한 여자중학교로 3박 4일 교육봉사를 갔다온 경험이 있었고 중학생 아이들이 우리들의 말에 집중도 잘해주고 모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마쳐서 해남에서도 별 탈 없이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쥬빌리지역아동센터에 도착해보니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했고 또 어린 아이들이다보니 집중시키고 모든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쥬빌리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계속될수록, 아이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기억해주고 칭찬해줄수록 아이들이 저희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보였습니다.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등을 하면서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던 아이들에게 옆에서 계속 칭찬을 해주며 격려를 해주니,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칭찬의 중요성과 아이들에게 일대일로 관심을 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